

# Essay on Veterinary History III. 메소포타미아 - 직업 수의사의 출현

천명선 / (주)동아시아이언스 연구원

## 함무라비 법전의 수의 진료에 관한 조항



그림 1. 1902년 수사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기둥 (루브르 박물관)

작년 초 애완견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보도됐다.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동물병원은 애완견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언론에 보도될 만큼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3000년에도 이런 가축진료 분쟁에 대한 조정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이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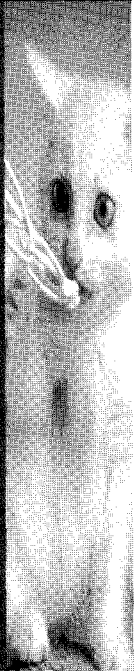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Hammurabi, BC 1792 BC 1750)의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 함무라비법전은 ‘복수주의’를 표방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로 유명하다. 매우 엄격한 이 경전은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215 조-223조)와 소와 나귀에 대한 의료행위 (224조-225조)에 대해 언급한다(그림 1).

224조 : “소나 당나귀의 의사가 환축에게 중대한 상처를 만들고(= 수술을 해서), 이를 통해 환축이 치료되면, 소나 당나귀의 주인은 의사에게 치료비로 1/6세켈<sup>1</sup>을 지불해야한다.”

225조 : “소나 당나귀의 의사가 환축에게 중대한 상처를 만들고(= 수술을 해서), 이를 통해

<sup>1</sup> 동물 가격의 1/6이라고 해석한 자료들도 있지만 당나귀의 가격의 1/6은 약 6.7 세켈로 평민의 치료비보다도 높은 가격인 셈이므로 여기서는 1/6 세켈이라는 번역 자료를 택했다. 세켈(Shekel)은 바빌로니아의 화폐 단위로 약은 11g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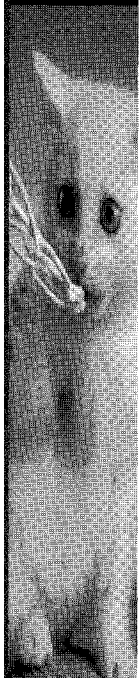
환축이 죽으면, 의사는 소나 당나귀의 주인에게 동물 가격의 1/4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의술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놀랄 만큼 잔인한 것들도 있다. “수술 중 평민이 죽거나 그 눈을 잃었을 경우 수술한 의사의 손목을 자른다. 노예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그 값을 물어준다.(218조, 219조)” 후일 이들의 후손인 이슬람의 의사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술을 발전시켰던 기원이 이런 엄격한 의료법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이 간다.

참고로 외과 수술이 아닌 경우 치료가 성공적이었을 때, 의사들은 평민의 치료비로는 5세켈을 노예의 치료비로는 2세켈을 받았다(221-223조). 중대한 외과수술의 경우 10세켈을 받았다(215조). 소나 당나귀 의사에게 지불한 돈이 1/6세켈이라면 평민의 의료비에 비해 매우 적은 돈이다. (참고로 당나귀 한마리의 값은 40세켈이었다.) 하지만 기능공의 하루 임금이 1/5세켈이었다는 기록을 참조하면 이들의 진료수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의 진료에 대한 이 두 조항은 수의학적 처치가 사람에게 대한 의료행위보다 덜 중요했다거나, 수의사가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기 보다는, “소를 고치는 의사, 당나귀를 고치는 의사”(A.ZU GUD u lu ANSE)라는 언급으로 인해 수의학사(獸醫學史)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의사로서 언급되고 있는 ‘소의사’, ‘당나귀 의사’가 동물을 다루는 본격적인 직업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처음이다. 소와 당나귀는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함무라비왕의 후계자였던 삼수일루나(Samsu-iluna, 1749-1712 B.C.)시대의 한 법정문에 한 “소의사”(“azu gu hia”)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잃어버린 소의 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7명의 증인 중 하나로 소의사 “Abil-ilisu”를 들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록을 남긴 최초의 수의사 이름이다.

## 고전 수의학의 주인공 ‘말’의 등장

함무라비 법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양이나 염소, 돼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가축들을 의사에게 보여 치료를 받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말 역시 언급되지 않는데, 이는 상류 계층만이 이용했던 이 동물의 특성상 일반인들의 문제를 다룬 함무라비 법전에서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이 가축화된 것은 다른 가축에 비해 늦은 편으로 B.C. 4000년 경(남부 러시아)이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B.C. 2000경 이후 상용화됐다. 처음에는 “Anche Kurra”(외지에서 온 당나귀)라고 불린 것으로 짐작하건대 외부에서 가축화된 형태로 이 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며 주로 수레를 끄는 동물로 쓰였다. 사람이 말 등에 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00년 후 정도로 추측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 어느 민족이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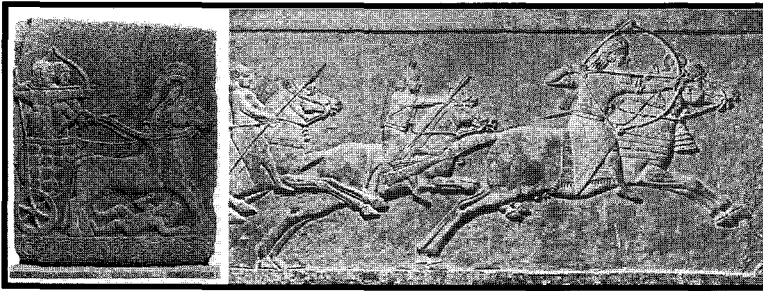


그림 2. 말의 이용 (기원전 7세기경, 이라크)

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후로 중세를 거쳐 근세에 이르는 동안 말은 군사용으로 그리고 수송용으로 가장 귀중한 가축으로 자리 매김했다.(그림 2)

히타이트인들의 말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키쿨리 문서(Kikuli, 1380-1340 B.C.)에는 183일의 말 훈련 과정과 과정별 특수 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당시 이미 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사육법이 존재했음을 알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가 마의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말 사육에 대한 지식으로 미루어볼 때 상당한 수준의 마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수의학 지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자료는 약간 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 샴라(Ras Shamra)에서 발굴된 점토판(14.th B.C.)으로 우가리트(Ugarit)<sup>2</sup>어로 쓰여졌다. 이집트 엘-라혼의 수의학 문서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초로 조제한 약을 'per naris'로 투여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시대에 암말과 당나귀 수컷의 잡종인 '노새'가 등장했다. 기원전 12-14 세기 시대의 히타이트 가축 가격표에는 노새의 가격이 말의 두 배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어느 민족이 이 튼튼하지만 번식력이 없는 동물을 처음 이용했는지는 역시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치료의 여신 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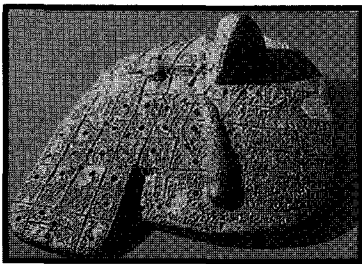


그림 3. 점토로 만든 간의 모형 (기원전 19세기경, 바빌로니아, 대영박물관)

바빌로니아 인들은 염소나 양의 간을 이용해서 점을 쳤다 (hepatoscopy). 점을 치는 이는 간의 엽을 조사해서 그 상태에 따라 미래를 예견했다. 왜 미래를 점치기 위해 '간'을 이용했을까? 이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피'가 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기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기이고 인간의 생명과 감정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심장은 인간 '지성'의 중추로 간주됐다.(그림 3)

2 오늘날의 라스 샴라지역으로 기원전 1200년 경 지진으로 파괴된 고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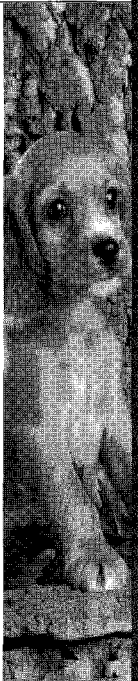




그림 4. 바빌로니아 치료의 여신 굴라와 상징동물인 개를 묘사한 부조 (기원전 12세기경)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약초 식물을 광범위하게 병의 치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역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수의학 역시 마술과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다. 메소포타미아 인들도 질병은 '죄'의 대가로 생각했고 치료 과정에서 신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에 신성한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일반적이었다. 이런 신들 중 주목을 끄는 신은 치료의 여신인 '굴라(Gula)'다. 굴라 여신은 생물에 생명을 부여하고 죽은 이들을 부활하게 한다고 여겨졌다.

이 여신의 상징 동물은 '개'로 여신이 치료를 행할 때는 언제나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여신의 신전 유적에서 많은 수의 강아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연령으로 볼 때 일종의 유행병에 희생된 어린 강아지들로 추측된다<sup>3</sup>. 강아지들이 치료되기를 비는 주인들은 이들을 신전 가까이로 데려오고 결국 이 곳에 묻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그림 4) **데** **수**

### 참고서적

- A. von den Driesch, J. Peters: Geschichte der Tiermedizin, 2003, Schattauer, Stuttgart
- R. H. Dunlop, D. J. Williams: Veterinary Medicine, An Illustrated History, 1996, Mosby, St. Louis
- D. Karasszon: A Concis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1988, Akademiai Kiado, Budapest
- J. Schaaffner: Abil-iliu-Ein "Rinderarzt" in Babylonien um 1759 v. Chr. I, Dtsch. Tierärztl. Wschr. 106: 252-254, 1999
- 윌리엄 A. 로턴 (김동광, 권복규 옮김) 세계과학문명사 1, 1999, 한길사, 서울

<sup>3</sup> 학자들은 개 디스템퍼를 의심한다.